

광주 민간공항 무안 이전, 군공항과 연계 추진 확정

국토부, 공항개발계획 고시...무안공항 관리동 신축 등 시설 확충 광주 "연계"-전남 "先 민간공항 이전"...갈등·논란 지속 될 듯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 공항으로 통합·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시민여론 조사를 통해 민간과 군 공항 이전 연계 추진을 결정했던 광주시는 이번 국토부 결정에 따라 군 공항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온 전남도는 서남권 중심공항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서 한편 '선 민간공항 이전'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고시하고, 무안 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 이전 시기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에 대비해 무안 공항 시설 확충, 교통 여건 개선 등 과제와 함께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적정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동 신축, 주차장 확충, 터미널 리모델링 등 무안 공항 시설을 확충하고 2025년 무안을 경유하는 호남 KTX 2단계 개통으로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군 공항 연계 이전을 주장해온 광주시와, 선 민간공항 이전을 강조해온 전남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선 전남도의회와 사회단체 등의 연계 추진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안 군민들은 국토교통부 앞 항의집회 등을 통해 민간공항 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018년 8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올해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옮기고 군

공항 이전에도 협력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표류하자 광주지역 사회에서 민간공항 단독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고, 광주시는 시민 여론조사 끝에 민간·군 공항 이전 연계 추진으로 선회했다.

한편,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24일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과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리동 신축, 주차장 확충, 여객청사 리모델링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2025년 무안국제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 대중교통 연계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에서 이전 지역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통합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연계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기반·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 통합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수원 군공항 이전 사례처럼 획기적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2022년 어촌뉴딜300 66개 신청...선정 주력

현장 밀착형 전문가 자문 실시 역량 강화 교육 등 철저 준비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에 13개 연안 시·군 66개소를 신청했다. 시·군별로 여수 10개소, 신안 14개소, 고흥 12개소, 완도 7개소, 진도 5개소, 무안 5개소, 해남 4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다 선정돼 사업비 7633억원(국비 534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전국 250개소 중 전남이 82개소

로 33%를 차지했다. 특히 신안 만재항은 어촌뉴딜300 사업 전국 첫 준공지로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30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여객선 집안시설을 개선, 그동안 여객선으로 섬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종선(작은배)으로 옮겨타야 했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섬 주민의 일일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전남은 전국에서 어촌·어항이 가장 많아 수산업과 어촌 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대부분 오지에 있고 개발 여력이 부족해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절실하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각 신청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전문가 자문을 수차례 실시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철저히 준비했다.

공모사업 평가는 10월 서류·발표평가, 10-11월 현장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12월 초 5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전남의 여건상 절실한 만큼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정부 인증 소재·부품 전문기업 90개로 늘여

맞춤 지원으로 기업 성장 한몫

전남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대책 2030'과 그에 따른 기업 맞춤형 지원이 도내 소재·부품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17개 사에 불과했던 정부인증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올해 90개사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제조업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남 소재·부품 중장기 발전대책 2030'을 수립했다.

또 2019년 말에는 금속, 화학, 세라믹, 레이저

등 4개 분야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대책의 집행에 나섰다.

중장기 발전대책 2030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2030년까지 300개까지 확대, 38개 핵심 전략 품목 기술개발, 기업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대형 원스톱 지원과 같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전남도는 '전남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대불용접산업 등 19개사를 선정해 기술, 마케팅, 품질 향상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소재·부품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자동차, 가전용 초고내식 표면 처리 강판의 상용화 기술개발' 등 7개 과제 1220억

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2023년까지 259억원을 들여 가상공간에서 소재·부품의 공정 시험, 실증테스트 등을 하는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도 올해 확정해 향후 제품 개발, 공정 개선 비용·기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대형 원스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티디엘 등 5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장비, 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개발부터 연구기획,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소재·부품 산업은 모든 산업과 연결된 기초이자 핵심 산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력 확보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라며 "소재·부품 기업의 역량을 키워 전남이 소재·부품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사말 하는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광산구 빛그린산단 글로벌모터스(GGM) 주차장에서 '2021 광주프린지페스티벌' 9회차 분산형 공연으로 진행된 글로벌모터스 드라이브인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년 5월 개장 광주 첫 시립수목원 공정률 50%

나무 4500그루 이식...33억 절감

광주에 처음으로 들어서게 될 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이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50%로 방문자센터, 수목관리동 건축물 기초 작업을 마치고 도로, 우수 시설 등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나무 심기를 시작한다. 일부는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공사장에 있던 중·대형 목을 활용하기로 했다. 백운교차로 등 9곳에서 52종, 4천483그루를 옮겨심기로 하고 지난달까지 3507그루를 수목원 옆에 임시로 심었다.

개발 등으로 베어질 위기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 자원 보존은 물론 수목원 조성 기간 단축, 33억원 안팎의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수목원 내 수축전 정비 공사도 수목원 조성에 맞춰 추진한다. 시립 수목원은 광주 남구 양과동 일원 24만7000㎡에 470억원을 투입해 남도 숲 3개 지구, 가을 정원 등 9개 정원, 향기원 등 총 15개 테마로 구성한다. 2009년 조성 예정지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1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면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공립 수목원이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